

# 교활해진 北의 대남 공산화 전략



**박정연의 난세치세**  
亂世治世  
(예)육군대장  
밀리테크협회 회장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북한의 전(全)조선 혁명 전략은 크게 남조선혁명 단계와 조국 통일 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당면 목표-남조선혁명 완수)인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단계와 2단계(최종 목표-적화통일)인 남북 협력을 통한 사회주의혁명 단계가 그것이다. 북한은 주체사관에 입각해 한국 사회를 미국에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식민지 사회로 평가하고 있다.

‘민족해방’이란 남조선혁명을 위해 먼저 ‘남한 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자’라는 미 제국주의를 남한 땅에서 축출하고 남한 민족의 해방을 이룬다는 의미다.

‘(인민)민주주의혁명’이란 미국의 대리 통치 정권이며 독재정권이라 규정하는 남한 정권을 남한 인민의 힘으로 타도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체제로서

인민정권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해방은 ‘미제 축출=주한미군 철수+주화’를, (인민)민주주의혁명은 ‘남한 정권 타도 후 인민정권 수립+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후 북한은 2단계로 남북 협조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진행시켜 이른바 전조선 혁명을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북한의 전조선 혁명 전략은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에서 체계화된 것인데, 김정은 정권도 이를 계승하고 있다. 북한은 조선로동당 제7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 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해결하거나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목적은 남한 지역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남북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국제·국내 및 대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7월1일까지 나흘간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확연한 상승세"라며 경제 정책 성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환경 요인의 변화에 따라 대남 전략을 꾸준히 발전시키면서 대남 혁명 승리와 조국 통일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광분해 왔다.

김일성은 통일의 방법으로 평화적 통일과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제시했다.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1950년대까지 북한 지역의 혁명 역량 강화를 토대로 전 한반도의 무력 적화통일과 공산혁명을 완수하고자 하였다. 무력 적화통일에 실패한

북한은 1960년에 들어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다양한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해 왔다.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어 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하며 “만일 남조선 당국이 천만부당한 ‘제도 통일’을 고집하면서 끝없는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 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2021년 노동당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은 “통일이라는 꿈은 더 아득히 멀어졌다”고 선언했다. 2022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김정은의 인식은 “강력한 국방력만이 조국 통일 위업 달성의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민족 대단결과 연방제 등 기존의 북한식 통일론과는 거리를 유지했다.

2023년 12월 북한 조선노동당은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번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북한의 대남 전략의 변화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연설에서 ‘전쟁 준비’ 등의 호전적 표현을 쏟아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남북 관계를 ‘적대국가 관계’로 공식화하며 대남 전략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했다. 특히, 올해 1월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제가 예산을 제외하면 대남 기구 정리였다는 점에서 2024년 들어 북한의 대남

전략에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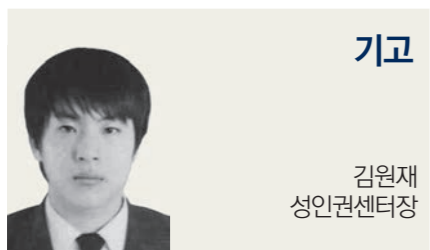
‘적대적 두 국가’ 선언부터 ‘주적’ 발언, 그리고 대남 기구 정리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대남 전략의 근본적 전환을 거침없이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과거의 유산까지 부정하며 달라진 남북 관계를 아예 법과 제도로 공고히 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민족관-남한관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면서 ‘김일성-김정일과 완전히 차별화된 길을 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남한을 ‘교전국’으로 본다는 것을 헌법에까지 명시하겠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획득이라는 성과를 발판으로 ‘영토 완전(完整)’을 내세운 공세적 무력통일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선대로부터 이어져 온 통일노선 전환의 이유를 내부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도 이러한 전략이 유리할 것이다.

북한이 민족주의 기반 통일노선 폐기 선언 이후 지속적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무력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북한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젠 집단 테러까지 감행하는 페미니즘



기고

김원재  
성인권센터장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2030세대 청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대는 ‘여성 인권’ ‘여성 평등’을 떠올릴 것이다.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 싸우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싸우며 여성에 대한 이유없는 혐오에 대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초기에는 이것들이 맞았다. 실제로 페미니즘 운동 덕분에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대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머지 세대들은 막연하게 페미니즘의 이런 모습만 기억하고 있어 반(反)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2030 청년들을 쪼잔한 남성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와 같은 여성 차별은 대부분 해소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페미니즘 세력은 정치·언론·행정·사법 영역에서 카르텔을 형성해 막대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

대부분의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주의가 그러하듯 페미니즘 역시 카르텔을 형성해 권력을 누리게 되니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무(無)오류의 합성

에 빠졌다는 것이다. 단순히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남성에 대한 차별·혐오 심지어 테러를 자행해도 여성인권운동이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언론은 이를 방치했다. 정치권의 면죄부를 얻은 페미니스트들은 당연하게도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만행을 비판하고 소신발언 하는 이에게 집단적 테러와 린치를 가하는 지경까지 왔다.

**시정역 희생자, 남자라는 이유로 조롱**

얼마 전,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급발진으로 추경되는 승용차가 상가 앞 인도에서 한담을 나누던 시민 13명을 덮쳐 9명이나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피해자는 30~50대 남성들로 근처 상가에서 회식을 하고 나온 직장인이었다.

페미니즘 성향을 가진 각종 온라인 여초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갑자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글을 남기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전원 남자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굿다이(좋은 죽음)” “개꿀~” “남자 인구를 줄여줘서 감사합니다” “스트라이크!” 등의 인륜을 저 버린 댓글을 달았다.

국내 최대 여초(女超) 커뮤니티(여성 유저의 비율이 높은 인터넷 커뮤니티) ‘여성시대’의 한 이용자는 이번 참사 피해자들

이 차에 치인 모습을 “벌링벌”이라고 비유하는 사이코패스적인 댓글을 달았고, 이에 상당수의 여성시대 이용자는 “ㅋㅋㅋ”라고 웃으며 여기에 동조했다.

여성시대는 100만 명에 육박하는 초대형 여초 커뮤니티로 여성만 가입할 수 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방문해 인증을 하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소신있는 여성 기자, 이들의 만행 기사화**

여초 커뮤니티의 이 같은 만행을 한 소신 있는 여기자가 단독기사를 쓰며 공론화시켰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 기사를 필두로 조선중앙·동아일보 같은 메이저 언론사는 물론 국민일보·세계일보 같은 중견 언론사들도 앞 다퉈 여초 커뮤니티의 남자 희생자 조롱을 기사화했다.

한 여기자의 용기있는 행동이 미온적이던 언론의 태도를 바꿔 버린 것이다.

**여기자에 집단 린치 시작**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여초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해당 여기자를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플을 쏟아냈다.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여성을 팔아먹는다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 성범죄에 가까운 성적 비하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해당 여기자 SNS에 몰려가 집단



경찰관들이 5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추모글을 빗자루로 쓸어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적으로 악플을 남기고 여기자가 소속된 언론사에 해고하라고 난동을 부렸다. 페미니스트들이 자신의 만행을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 린치를 가한 것이다.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이보다 더 황당한 것은 여기자를 도와줘야 할 여타 기자들이 오히려 여기자 집단 린치에 가담했다는 점이다. 해당 기자들은 기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직장인 커뮤니티에 “온라인 커뮤니티 글 가지고 기사를 쓰나 밖에 좀 나가라” “다른 기자들은 저런 거 몰라서 안 쓰는 줄 아냐” “일부 사례 가지고 또 확대 재생산하네 ㅋㅋ” “어그로 끌고 있네” 등 수준 이하의 글을 쓰

며 여기자를 공격했다.

한심한 것을 넘어 역겹기 그지없다. 저널리즘을 가지고 소신 기사를 쓴 용기있는 기자를 향해 칭찬은커녕 비난이 아니라, 그것도 익명에서 숨어서 말이다. 침묵하는 것을 비난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행동하는 사람을 욕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자로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저들이 내세운 비판 논리 역시 한심하기 그지없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이슈를 반영해 기사를 써 온 지 오래다. 다른 기자들은 몰라서 안 쓰는 줄 아느냐고, 성별이 바뀌었을 때는 잘만 쓰지 않았는가.

일부 사례만 가지고 확대한 것이다? 조희수 4회밖에 안 되는 어그로성 게시글도 여성을 공격하는 글이라면 눈이 벌개져 기사화했으면서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 같은 사례는 또 있다. 한 일본인 여성이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한국 남성들이 당하는 차별과 혐오에 대해 쓰자 페미니스트들이 집단적으로 몰려가 상상을 초월하는 악플을 남겼다. 이에 일본인 여성은 “악플 후기”라는 책을 만들어 자신이 당했던 만행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책을 구매예약한 뒤 나중에 취소하거나, 일본인 여성에 대한 허위 신고·민원 고발 등 집단 테러를 가했다. 결국 일본인 여성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지경이 됐음에도 반성은커녕 자신들이 승리했다며 자축했다.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이처럼 페미니스트들의 만행은 점점 더도를 넣고 있다. 페미니즘이 괴물이 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언론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2030 청년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그들은 꿈쩍도 않는다. 쪼잔하게 굴지 말라.

상식이 비상식이 된 사회가 과연 제대로 된 사회일까. 누가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을까. 더 늦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저출생을 비롯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맛있는 우리말 200

스카이데일리 연재

다양한 예문과 함께 떠나는 우리말 맛집 탐방

**일상 속 다양한 표현에 풍미를 더하는 맛있는 우리말 모음집**

I. 달콤한 우리말	II. 얼큰한 우리말	III. 새콤한 우리말	IV. 씹살한 우리말
V. 칼칼한 우리말	VI. 매콤한 사자성어	VII. 개운한 우리말	VIII. 씹쓸한 들은말

우리말에 담긴 헛갈리는 표현, 동음이의어, 띄어쓰기의 함정, 사자성어, 꼭 알아야 할 맞춤법 등 다양한 우리말을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총 8장으로 구분하였다. 한 페이지에 500자 내외의 글로 담아 어느 쪽을 펼쳐도 새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저자 박재역 | 글로벌콘텐츠